

한국 건축상의 역사와 전망

History and Prospects of Architecture Awards in Korea



김현섭 Kim, Hyon-Sob
정회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머리말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건축상의 시작점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약칭 ‘국전’) 건축부문에 대한 시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창설된 국전에 건축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제4회부터로, 배경에는 “건축의 예술성”을 천명코자 했던 건축인들의 노력이 있었다.¹⁾ 그리고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각종의 전시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우수작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같은 건축전 및 건축상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대폭 늘어난 건축상의 “외화내빈”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SPACE』의 최근 리포트(2016.8)는 귀담아 들을만하다. 요컨대, 근래 수여되고 있는 연 60여 종의 건축상 가운데 다수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여 “양적 풍토 속에서도 끝없는 빈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건축상은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의 주체가 신설하고자 하는 건축상은 어떠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에 본고는 근래 양적 성장에 치우친 건축상에 대한

* 이 원고는 2018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2018.5.18,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발표한 필자의 논문 「한국의 건축상, 그 발자취와 전망: 한국건축역사학회 작품상」 신설을 위한 제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강명구, 『國展의 어제와 오늘』, 『한국현대미술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편, 1978, 109-151쪽.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에는 큰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건축’을 ‘건설기술’로만 여기던 당시에는 하나의 시대적 요구였다. 1954년 3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건축미술과의 출범이나 1957년 1월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의 창립도 같은 맥락에 있다.

2) 윤슬희, 「건축상, 풍요와 빈곤 사이」, 『SPACE』 585 (2016.8), 52-59쪽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는 가운데, 지난 반세기 한국 건축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비교적 정체성이 뚜렷한 건축상의 현황과 특성을 간략히 개괄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여기서의 건축상은 학술상이나 비평상보다는, 건축물의 실제적 설계 및 구현에 관계된 ‘작품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겠다. 이를 위해 각 단체의 발간 책자와 웹사이트, 그리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웹사이트에 부분적으로 정리한 건축상 현황 등을 참조했다. 역사 개괄은 대체로 시간 순서를 따르되, 편의상 ‘한국의 대표적 건축상’과 ‘2000년대 신설된 건축상’으로 나뉘어 보도록 하자.

한국 건축상의 역사 개괄

한국의 대표적 건축상

(1) 국전의 건축부문 시상(1955~69: 1974~81): 머리말에서 소개한 국전에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외 일반 건축가들이 참여했고, 건축부문이 처음 참여한 1955년 제4회의 “일반입선”을 시작으로(김종식의 ‘공군본부설계도’ 등 네 건) 이후 각종 수상자가 나오게 된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초기의 수상에는 1961년 제10회에서 강석원과 설영조의 ‘육군훈련소계획’이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던 것과, 이듬해 제11회에서 재미 건축가 김종성(1935~)이 미스 반 데어 로에 스타일을 이어받은 ‘미술관 설계안’으로 2위상 격인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상’을 받았던 것이 있다.³⁾

3) 전체 수상작 현황에 대해서는 강명구의 앞의 글(1978) 참조

(2) 현대건축작가전(1962~81) 및 오월 신인예술축전 신인건축상(1964~66):⁴⁾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건축가협회(1959년 개칭)가 회원들의 작품과 해외의 건축 흐름을 소개하기 위해 1962년 1회 전람회를 개최했고(회원작품부, 신인작품부, 해외작품부), 이는 일부의 변화를 겪으며 1981년(16회)까지 지속된다. 그 가운데 2회(1963)와 3회(1965)에는 공모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한편, 문화공보부 주최의 신인예술 콩쿠르가 1962년 시작됐는데, 3~5회에 포함된 건축부문을 한국건축가협회가 담당해 신인건축가들을 포상했다. 이후 한국건축가협회 자체의 신인건축전을 1969년과 1970년 개최해 신진 건축가들에 대해 시상한다.

(3) 대한민국 건축대전(1982~현재):⁵⁾ 1982년에 국전이 미술대전으로, 즉 “官展에서 民展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전의 건축부문을 한국건축가협회의 현대건축작가전과 통합해 ‘대한민국 건축대전’으로 개최하기 시작한다(일반공모전+초대작가전). 1회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대상작 ‘박물관’(양남철, 최윤경, 이현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하고 수용에 어려움이 있던 ‘포스트 모던’ 계열의 작품과 표현기법으로 國展 공모부와 획을 긋는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전한다.⁶⁾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건축대전 일반공모전을 국제공모전으로 진행하고 있고(2012~현재) ‘올해의 건축가100인 국제전(초대작가전)’을 포함한다.

(4) 한국건축전(1971~93) 및 한국건축문화대상(1994~현재): 1965년 법정 단체로 창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⁷⁾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한국건축전을 개최하며 다수의 작품에 시상을 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1992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통합 운영되어 현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역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

와 우수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현재 준공부문과 미준공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⁸⁾

(5)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1979~현재) 및 특별상: 1979년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은 “건축가의 건축가로서의 창작활동이 사회발전과 인간생활 환경창조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적, 기술적 또는 문화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상황 하에서의 건축가 자신의 노력 및 이에 협력한 건축주, 시공자들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매년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건축 전반의 제작의욕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문화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상(본상)은 해당년도에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베스트 7”을 선정해 수상작품에 기념동판을 부착하는 한편, 건축가에게 상패와 부상을, 건축주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구조가의 공로가 두드러질 경우 구조가에게도 시상한다. 수상작 선정은 건축가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협회가 여러 방법으로 대상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에는 현장답사 과정이 포함된다. 1979년 제1회 협회상(1978년 준공작)은 일신제강본사사옥(건축가 김정철, 건축주 일신제강, 시공자 정우개발(주)), 마산성당(건축가 김수근, 건축주 천주교마산성당교구, 시공자 보성산업(주)), 아리장(건축가 및 건축주 김원석, 직영공사) 등 일곱 작품에 돌아갔다.⁹⁾

한국건축가협회는 이 같은 본상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부터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건축가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초평건축상’(김정수 기금; 1회 주남철)을, 1983년부터(현재 시행 보류) “건축, 도시설계, 실내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학생의 졸업설계작품 중에서 우수한 3점”을 대상으로 ‘양남학생건축상’(최창규 기금)을, 1986년부터 “한국적 설계이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조화미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아천건축상’(김경환 기금; 1회 엄덕문(세종문화회관)을, 1989년부터 “매 해당년도 이전 3개년 간에 완성된 국내작품으로 창의적이고 선명하게 주제가 표

4) 한국건축가협회 편, 『한국건축가협회사: 1957-1990』, 기문당, 1994, 57-60쪽
5) 앞의 책, 40쪽
6) 한국건축가협회 편,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기문당, 1994, 325쪽
7) 그 뿌리는 1945년 결성된 조선건축사회 및 1955년의 대한건축사협회(이른바 ‘舊協’)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이견의 여지가 크다.

8) 대한건축사협회 웹사이트 및 장양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역사와 향후 과제』, 『建築, 建築士, 建築史: 1965-2010』, 대한건축사협회 편, 2011, 687-151쪽
9) 『한국건축가협회사: 1957-1990』, 61-62쪽

출되었거나 건축적인 성취가 두드러진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엄덕문건축상”(1회 공일군(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도서관))을 시상한다.¹⁰⁾ 그리고 2010년 제정된 김종성건축상은 “매 해당 년도 이전 5년간에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적용한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창의적이고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회 이성관(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 또한 2014년 제정된 무에25년건축상은 무에 이광노 교수의 뜻에 따라 “매 해당 연도 기준으로 준공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국내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으로서 현재까지 건축적·공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건축주와 건축가에게 수여”한다(1회 김종성(밀레니엄 서울힐튼)).¹¹⁾

(6) 서울특별시건축상(1979~현재), 경기도건축문화상(1996~현재), 부산다운건축상(2003~현재) 등 지자체 건축상: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자체는 각 지역의 우수 건축물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1982년 국전 폐지 이후 지역 자체 건축행사로서 1985년 시작된 부산건축대전 등이 있었고,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했다.)¹²⁾

(7) 김수근건축상(1990~2016): 김수근문화재단이 김수근의 건축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한 이 상은 한국 건축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2013년부터는 프리뷰 상(“실현이 약속된 계획을 대상으로” 열 점 이내 수여)과 본상(“준공된 프리뷰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수여)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프리뷰 상의 제정은 계획안 자체의 건축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수상작이 실제의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김수근건축상이 젊은 건축가들의 소규모 작업에만 국한된다는 우려가 있어 2017년부터는 이 상이 재도약을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¹³⁾

(8) CRI-ARC Award(1998~2002): 1996년 창간된 월간 『건축인 POAR』(1996~2007)가 1997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상한 “올해의 비평건축상”이다. 조병수의 성북동 스

튜디오(1996)를 1회 수상작으로 하여 2002년도까지 총 5회를 시상하고 중단됐다. 『건축인 POAR』에 평론이 실린 완공작을 대상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물어” 수상작을 선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¹⁴⁾

2000년대 신설된 건축상

(1) 젊은건축가상(2008~현재) 및 대한민국신진건축사 대상(2013~현재): 젊은건축가상은 “역량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도 유사한 목적하에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래의 일반적 관행처럼, 두 가지 상 모두 젊은 건축가(건축사)를 만 45세 이하로 규정한다.¹⁵⁾ 특히 젊은 건축가상은 1회부터 지금까지 수상작에 대한 작품집을 평론과 함께 국영문으로 발간해 배포해오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2006~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고려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¹⁶⁾

(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2007~현재):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시상하여,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¹⁷⁾

(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2011~현재): 국토교통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관으로 현대의 조건 속에서 한옥의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¹⁸⁾

(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2012~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으로 패시브디자인의 적극적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제고, 온실가스

14) 당 저널의 발행인 전진삼은(매번 다르긴 하지만) 약 1천 명가량의 독자들에게 엽서를 발송해 의견을 물었고, 1~2백 명의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필자와 전진삼의 대화, 2018.5.18&2018.8.13

15) 새건축사협의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웹사이트

16) 대한민국공공문화대상 웹사이트

17)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웹사이트

18) 앞의 웹사이트

10) 앞의 책, 61-62쪽

11)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

12)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330쪽

13) 김수근문화재단 웹사이트

배출의 최소화 등을 통한 “녹색건축”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¹⁹⁾

(6) 건축명장(2012~현재): 2012년 새건축사협의회가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한국건축가연합(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 대상의 시상 제도다. “건축명장 결의문”을 통해 시공기술 향상과 투명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²⁰⁾

(7) KIA Gold Medal(2014~현재): 2014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제정한 이 상은 “건축가의 삶 동안 건축 작품의 현저한 업적을 이룩하여 일반대중과 동료 및 후배건축가들에게 존경받는 건축가에게 수여”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건축상”을 지향한다. 건축가 김종성이 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²¹⁾

(8) ACA Award 작품상(2017~현재): 2015년 창간한 계간 비평지 『건축평단』이 2017년 처음 수여하기 시작한 상이다. ACA(Architectural Critics Association) Award는 평론 부문과 작품부으로 나뉘는데, 제1회 작품상으로 이순 건축의 운문유치원(2007)이 선정됐다. 본격적 건축비평을 지향한 매체가 시상한 상인 까닭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건축상의 역사가 주는 시사점

앞장에서 살펴본 한국 건축상의 역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금까지 명멸한 대개의 건축상은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외적 목적으로 하되, 건축가나 대중의 건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해 전시, 출판 등 다양한 이벤트에 동반되거나 이를 동반한다. 한국 건축상의 기원인 ‘국전’의 경우 전시가 선행했고, 시상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성행하고 있는 수상작 출판(젊은건축가상, 건축명장, 김수근건축상 등)은 수상작에 대한 기록과 아카이빙으로서 의미가 크다.

둘째, 건축상은 본질적으로 시상 주체의 존재근거 혹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정부기관, 협회, 학회, 지자체 등). 때로 경쟁 단체와의 뚜렷한 차별화 없이 유사한 상이 중복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건축가협회와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한건축사협회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현재적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사한 건축전시와 시상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2008~13)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08~현재)가 ‘녹색건축’을 내세운 것은, 그 주제의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선택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엿보인다.

셋째, 1950~70년대의 ‘국전’과 ‘현대건축작가전’에서 알 수 있듯, 그리고 건축가를 ‘작가’로 건축물을 ‘작품’으로 자주 부르는 경우에서 보게 되듯,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강조는 초기 건축상 제정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하지만 건축상은 2000년대 신설된 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진건축가 발굴(젊은건축가상 및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공공성(대한민국공공건축상), 환경문제(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시공자 존중(건축명장)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에 대한 인식을 잘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각되어 여기 열거한 관심사가, 반드시 과거에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 이미 한국건축가협회는 신인예술 콩쿠르와 신인건축전을 통해 젊은 건축인들의 활동을 적극 격려하려 했었다. 그리고 ‘건축명장’이라는 탁월한 건축상의 관심사는 1979년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본상)이 건축가 및 건축주와 더불어 시공자를 치하했던 데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서론에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건축상의 정체성은 상의 권위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 본고가 서술한, ‘2000년대 신설된 건축상’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제정된 건축상 가운데서는 한국건축가협회의 특별상을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의 원활한 시행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해당 상들은 기금 기탁자의 뜻에 맞게 상의 범위를 특정해두고 있다. 예컨대 건축설계에 적용된 “한국적 조화미”와 “테크놀로지”를 각각 강조한 ‘아천건축상’과 ‘김종성건축상’은(후자는 2010년 제정된 것이지만), 그 주제어의 개념과 적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경우라 하겠다.

19) 앞의 웹사이트
20) 건축명장 웹사이트
21)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

맺음말: 건축상을 신설코자 한다면...

한국 건축상의 개괄적 역사 및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에서 신설되고 있는 여러 건축상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주체가 건축상을 시상하려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물음이다. 60여종이나 되는 “건축상의 홍수” 속에²²⁾ 왜 또 하나의 건축상을 신설하려 하는가? 건축상을 신설코자 한다면 거기에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대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그 상의 신설 이유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뚜렷이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상의 권위를 획득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실무적 차원의 방법론은 자연스럽게 뒤따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지만 몇 가지 구체적 논점이나 제언을 서술해보자. 첫째, 계속 강조된 상의 정체성 혹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할 텐데, 이것은 그 건축상의 ‘기본 규정’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건은 ‘기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뚜렷하고 일관되게 심사 적용할까에 있다. 이전의 건축상 가운데서는 심사위원이 바뀔 때마다 상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²³⁾ 셋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심사라면 심사과정에는 당연히 현장답사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심사 이후에는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심사평을 작성하고 공개토록 해야 한다. 심사평은 결국 시상 주체의 웹사이트나 회지와 같은 발간물을 통해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상작에 대한 별도의 단행본을 발간해 거기에 출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설될 건축상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시상 주체의 임원진 및 구성원 모두가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꾸준히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행정적 소요가 크게 예상될 경우 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강명구, 『國展의 어제와 오늘』, 『한국현대미술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편, 1978, 109-151쪽
2. 대한건축사협회 편, 『建築, 建築士, 建築史: 1965-2010』, 대한건축사협회, 2011
3. 윤솔희, 「건축상, 풍요와 빈곤 사이」, 『SPACE』 585 (2016.8), 54-59쪽
4. 한국건축가협회 편, 『한국건축가협회사: 1957-1990』, 기문당, 1994
5. 한국건축가협회 편,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기문당, 1994
6.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aurum.re.kr>)
7. 건축명장 웹사이트(<http://masterbuilder.kr>)
8. 김수근문화재단 웹사이트(<http://kimswoogeun.org>)
9. 대한건축사협회 웹사이트(<http://www.kira.or.kr>)
10. 대한건축학회 웹사이트(<http://www.aik.or.kr>)
11. 대한민국공공문화대상 웹사이트(<https://www.goodplace.or.kr>)
12. 새건축사협의회 웹사이트(<http://www.kai2002.org>)
13.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https://www.kia.or.kr>)

필자 소개

김현섭 교수는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서양 근대건축을 공부했다. 2008년 모교인 고려대에 임용된 이래 건축역사·이론·비평의 교육과 연구에 임해왔고, 근래에는 한국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역사서술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건축수업: 서양 근대건축사』(2016), 『건축을 사유하다: 건축이론 입문』(2017), 『DDP Controversy and the Dilemma of H-Sang Seung's 'Landscape』(JAABE, 2018) 등을 출판했다.

22) 윤솔희, 앞의 글

23) 앞의 글